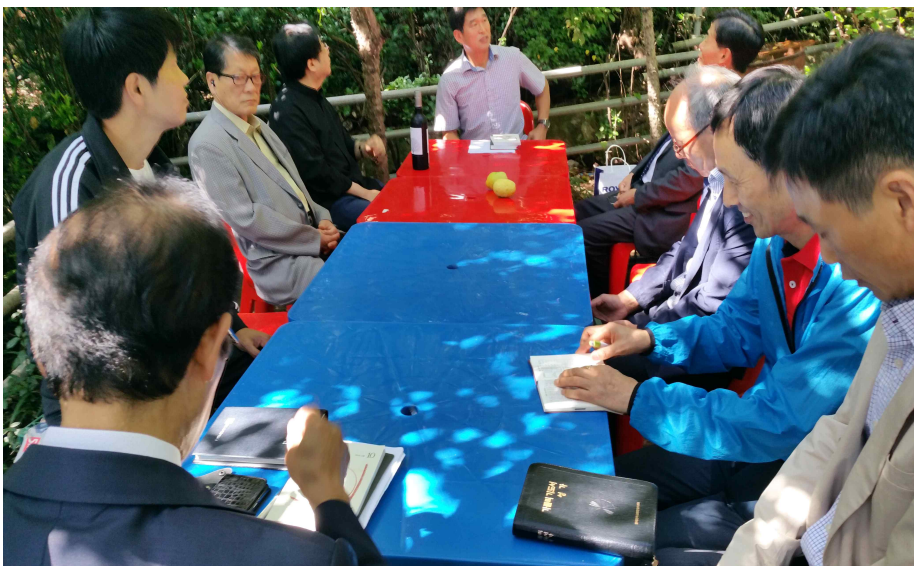


건축 헌금마련 일일 호프, 각 단체 화합의 송년회 로



각 단체별 만남장소 한자리에서 저물어가는 한 해를 돌이켜보고 서로 용서와 이해를 하면서 새로운 신년을 맞이하도록 화합과 일치를 다짐하는 풍성한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남성 구역모임 활성화는 자기 구역 거주하는 사목위원을 비롯하여 각 단체위원 까지 빠짐없이 꼭 참석해야합니다. 현재 구역 재편성은 분단된 구역을 그대로 두고 5,6구역만 통합하여 구역명칭을 5,6구역으로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구역 분단 조정으로 구역간의 분열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란 말씀과 다음으로 각 구역장들은 일일호프 행사날짜를 연말 성탄절 지난 후 보다 각 신자들은 벌써 연말연시 개인적 각종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은 남성구역장 월례회의를 10월7일(주일) 주임 신부님과 신임 사목회장 비롯하여 재적남성구역장 7명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성부회장(김평근 미카엘)형제분자택 뒤 정원에서 평신도사도직 위한 시작기도와 마르코 복음 봉독이후 당면 현안에 대하여 회의를 가졌다.

먼저 남성부회장은 ‘현안토의 주제는 본당 건축헌금 마련위해 남성구역장님들의 주관으로 일일 호프를 개최해야 하는데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시고 아울러 상호협력문제를 협의하는 회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성구역 활성화대안 토의도 합시다.’란 말에 이어 본당주임신부님께서 ‘이번 일일호프행사는 본당공동체 전원이 화해한 송년의 밤처럼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휴가계획이 세워져 있어 12월 14일(금)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하기로 결정과 당일운영과 섭외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 다시회의를 열어 세밀한 의견을 모으기로 하였다. 다른 안건으로 남성8구역장 한상규(필립보)씨 임기만료에 의하여 문정식(세례자 요한)씨를 참석한 전원이 박수로 추인하고 기타 발언에서 9구역장은 ‘본당 건축부채가 30억이란 전 신자들의 금전적 압박감이 있는 현실에 건축헌금 마련 일일호프이란 교우들에게 또, 압박감 주는듯한 솔직한 심정입니다.’란 말도 나왔다. 남성부회장은 ‘여러 가지가 고생을 많이 하실 줄 압니다. 결정된 행사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많은 정보와 의견을 모아 다음회의 시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로 회의를 마쳤다.